



보도자료 : 2011년 9월 1일

2011 풀 프로덕션 출판기념전
《김용익 : 무통문명無痛文明에 소심하게 저항하기》
Yong Ik Kim : Timidly Resisting the No-Pain-Civilization

2011. 09. 06 화 - 10. 14 금 (39일간)
개막 09.06 화 오후 6시 아트 스페이스 풀

문의 : 홍태림(매니저), 02-396-4805, htr@altpool.org
웹하드 정보(for Kor/Eng. Press Release) : www.webhard.co.kr id : altpool password : altpool
이 전시는 경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용익, 무통문명에 소심하게 저항하기, 2010, 사진, 피그먼트 프린트, 30x45cm(액자 포함)

2011년 가을 문턱에 아트 스페이스 풀은 작가 김용익(1947년 생, 양평 거주, 작업)의 책 출판을 기념하는 출판기념전 《무통문명無痛文明에 소심하게 저항하기》을 마련합니다.

이 자리는 이른바 한국의 1970년대 개념주의 전위 미술 작가로 미술에서 개념, 지각, 체험이라는 화두를 온몸미학과 생철학적 태도로 풀어온 작가 김용익의 글 모음집 『나는 왜 미술을 하는가-정치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의 연결을 보여주기』(포럼 에이, 현실문화 발행, 392쪽)의 출판을 기념하고, 책의 마지막 장인 “무통문명에 소심하게 저항하기”를 그의 실제 작업과 함께 공간에 구성하여 본 ‘글과 작업’ 전시입니다.



양식과 사조 구분에 익숙한 미술사 서술에서 작가 김용익은 속칭 ‘땡땡이 그림’이라 일컬어지는 평면 작품 시리즈로 70년대의 미국 미니멀리즘과 일본 모더니즘을 주체적으로 수용한 한국의 개념적 모더니즘 전위작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트 스페이스 풀은 역사적 작품에 대한 기념비적 물신화나 작가 개인에 대한 신비화를 넘어서서, 미학과 작업 태도, 실제 실천 행보에 일관성과 동시대성을 치열하게 유지하는 작가로 김용익을 주목합니다.

미술인 김용익의 철학은 물질과 이미지 간의 대립과 화해와 같은 순수미학적 고찰부터 공공미술, 미술제도, 문화경영, 한국의 미술교육, 지역미술에 이르는 실천미학적 고찰에 이르기까지, 철학과 일상을 관통하는 문화 이데아입니다. 그에게 문화 이데아는 삼라만상이 본래 지닌 지극히 상식적이고 개방적인 순리를 존중하는 문화적 태도입니다. 그의 미학론 요체를 분석하여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 명문明文化된 학습은 결국 우주라는 생명 공동체의 ‘순리’와 이를 인지하는 각자의 태도를 성찰해 보아야 하는 과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풀이 주목하는 작가 김용익의 요체는, 순리를 향하기 위해 그가 구사하는 논리적 사유와 실행이라는 두 개의 상호 공존하기 힘든 전술, 그리고, 이를 절합하여 온 그의 태도입니다. 논리적으로 사유하면서 몸으로 그 논리를 실행하기, 우주보편적 원리를 구체적 물질로 구현하기, 철학과 생활을 일체화 시키기, 개인적 사유와 사회적 발언을 조율하기, 그 극한의 온몸미학에서 김용익의 논제인 미학 개념과 현실 정치가 연결됩니다. 그의 온몸미학적 태도에서 그의 미술이 나오는 것이지, 미술로 어떤 미술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용익은 동시대 우리 미술계에 미술작품을 만들기에 앞서 미술을 행行하고 미술로 사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환기시켜주는 작가입니다.

김용익은 미술하기의 방식 중 하나로 줄곧 글을 써왔습니다. 그의 글은 자신의 작업을 설명하는 해제이자 작업 중 떠오르는 생각의 기록이고 작품에 삽입되어 남아있는 작품의 일부이며 무엇보다 관객과 대상에게 말을 거는 대화의 방편입니다. 따라서 김용익을 이해하는데 그의 글을 읽어 보는 것은 그의 작품을 미술관에서 감상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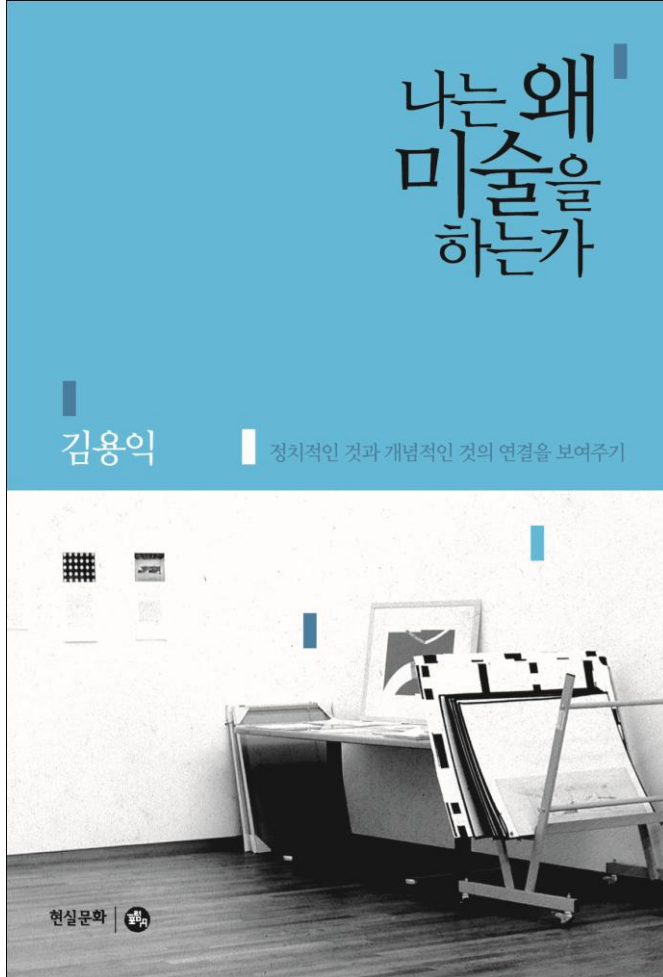
이번에 출간된 『나는 왜 미술을 하는가-정치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의 연결을 보여주기』는 작가 김용익이 다루어 온 다양한 화두와 상황을 일괄하는 77여 편의 선별된 원고와 70년대부터 현재까지 그의 작업 세계를 조망하는 작품 100여 점의 도판을 함께 수록하고 있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 “무통문명에 소심하게 저항하기”는 2000년 이후 공공미술과 학교 미술교육, 미술제도에 대한 고민의 연장선 상에서 문화적 사회의 전제조건인 문화 아비투스 구성과 생태학적 우주생명사상에 걸친 작가의 관심을 알려주는



장입니다. 김용익은 모리오카 마사히로의 이론을 빌어 가속화된 과잉 개발 속에서 인간의 자기 보호장치가 더불어 과잉 투자, 개발됨에 따라 사소한 통증에 무력해지고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사회 전반의 무통마취 문명화를 지적합니다. 상품화된 감수성 보다 더 암울한 사회의 불감증에 저항하기 위해 김용익은 자연의 순리를 찾아가는 일상의 노동과 쇠락, 고통에 미학적으로 예우를 표합니다.

미술 학제 내에서는 이번 김용익의 작업들을 소위 대지미술 계열의 행위미술이나 민간 토데미즘을 떠올리는 원시종교미술 양식의 작업으로 지칭할지 모릅니다. 김용익은 그의 글에서 “미술은 미래의 에너지가 되는 것을 꿈꾸고 설계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로 막는 것들에 덧을 놓고 논리적으로 수정해 가는 일이다. 논리를 극한으로 전개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순리 順理에 닿게 된다. 결국 ‘미술하기 ‘는 인간이 순리대로 살기 위해 행하는 온갖 몸부림이 된다” 하였습니다. 몸부림은 사치와 향락이 아닙니다. 차라리 시시때때로 부대끼는 일상의 작은 혁명에 가깝습니다. 일상의 미학과 생정치가 연결되는 작가 김용익의 온몸미학을 다시금 경험합니다.

김희진 (디렉터, 아트 스페이스 풀)



김용익 글 모음집

『나는 왜 미술을 하는가-정치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의 연결을 보여주기』

발행 : 포럼에이(발행인 김희진), 현실문화(발행인 김수기)

신국판(15X22cm), 컬러, 392 쪽, 한국어

지은이 : 김용익

편집 : 강유미 김소영

번역 : 길예경

사진 : 홍철기

디자인 : 정보환

ISBN 978-89-6564-027-01

18,000 원



목차

책머리에

1. 프롤로그

나를 소개한다.

2. 논리와 순리

논리와 순리

상식, 감수성 또는 예감

나의 최근작

물질과 이미지간의 화해

평면 오브제

개념을 통한 개념의 극복

3. 가까이... 더 가까이...

나는 왜 그림을 그리는가

내로우 베이스드 스페셜리스트의 노트 1

내로우 베이스드 스페셜리스트의 노트 2

다이얼로그, 모놀로그

인증된 모더니즘과 비판적 모더니즘

좋은 작품의 기준

4. 절망의 완수

얼룩들

무능력의 천민 집단, 여성

예술과 돈

한국에서 정치미술이 약한 것은 가족주의 때문이다.

5. 미술민주화의 지평을 열기 위하여

순수성에 나타난 예수로가 인생의 분리

나의 전체

개념주의로 본 현대미술

(좌담) 미술민주화의 지평을 열기 위해

풍경, 곰팡, 여름... 그리고 절망 또는 중생기

비엔날레와 대안공간

대안은 모더니즘의 퇴행에서부터

정치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의 연결을 보여주기

6. 당신들의 낙원에서 우리들의 낙원으로

선망의 정치학에서 누림의 정치학으로

공공미술은 어려워

공공미술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

이 시대에 공공미술이 왜 필요합니까

예술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2009년 11월, 북아현동으로의 추억여행

이시무레 미치코와 메이플소프의 환상과 전복적 비판성

사람답게 살고 싶은 꿈, 불온한 꿈

체제안의 우군과 연합하라

정처없는 글쓰기

7. 왜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지

홍씨 상가

우리의 위기의식은 허위가 아닌가

C 선생님께

전시회를 열며...

개인전을 마치며

이 지적 사기극을 고발한다

대지의 복수

원 나이트 스탠드

캡션을 수정해주마

경기도지사님께

P에게

8. 아이들아, 이것이 우리 학교다

레슨 3

레슨 4

나는 소극적 전략을 믿는다

부모님 전 상전

쌩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미술 전공해도 먹고 살 수는 있으니 오히려

미술을 걱정해

9. 무통문명에 소심하게 저항하기

무극보양 뜰

쏘 쿨한 글

성배의 진실

The Holy Grail

인도 기행

다크 마운틴 프로젝트의 여덟 개의 비문명 강령

나는 국가를 믿지 않는다

4 대강에 대한 사적대화

무통문명에 소심하게 저항하기 1

무통문명에 소심하게 저항하기 2

나는 오래된 미래를 준비한다

10. 에필로그

썩개떡에 부처



작가약력 김용익 金容翼

주요 개인전

- 1977 서울 갤러리, 서울
- 1978 手 갤러리, 도쿄
- 1982 관훈 갤러리, 서울
- 1986 인공 갤러리, 대구
- 1989 인공 갤러리, 서울
- 1993 인공 갤러리, 서울
- 1994 인공 갤러리, 대구
- 1996 응 갤러리, 서울
- 1997 금호 미술관, 서울
- 2000 새로운 예술의 해 응모 당선 공공미술
프로젝트, 국립 민속 박물관, 서울
- 2001 응 갤러리, 서울
- 2002 사간 갤러리, 서울
- 2003 표 갤러리, 서울
- 2006 갤러리175, 서울

주요 단체전

- 1975 '상파울로 비엔날레', 상파울로
- 1977 '한국현대미술의 단면', 센트럴미술관, 도쿄
- 1983 '한국현대미술전-70년대 후반 하나의 양상',
일본 5개 도시 순회
- 1987 '30/40 기하학이 있는 추상',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 1988 '한국현대회화 70년대의 흐름',
위키힐미술관, 서울
- '한국미술의 모더니즘 1970-79', 무역센터
현대갤러리, 서울
- 1996 'Two-One Man Show', 최갤러리, 서울;
아르스폴로나 갤러리, 바르샤바
- 1997 '그리기와 쓰기', 한림미술관, 대전
- 1998 '98 도시와영상', 서울 시립미술관, 서울
- 2002 '광주 비엔날레', 프로젝트 4, 광주
- '그리드를 넘어서', 부산 시립미술관, 부산
- 2004 '가상의 딸', 여성 플라자, 서울
- '당신은 나의 태양', 토탈 미술관, 서울
- 2005 '제1회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안양
- 2007 '행정복합도시공공미술 프로젝트:
종촌을 품다', 충남 연기
- 2008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공주
- '전향기', 대안공간 풀, 서울
- 2010 '젊은 모색 30',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경기도의 힘', 경기도미술관, 안산
- '제1회 몽골 랜드아트비엔날레',
고비 사막; 몽골 국립현대미술관,
울란바타르
-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공주
- '금지의 날', 아트 스페이스 풀, 서울
- 2011 '팔방미인', 경기도미술관, 안산



김용익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화

풀은 미술제도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학교 미술교육 제도 안에서 풀어보자는 의도에서 이번 대화 프로그램을 학교 수업과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평소 미술에서의 제도와 교육문제를 공감해오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에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논리와 순리- 정치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의 연결을 보여주기

- 09. 15 목. 2pm 청주대학교, 지도교수 엄기홍
- 09. 23 금. 10am 국민대학교, 지도교수 김윤경

왜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지- 제도, 미술시장,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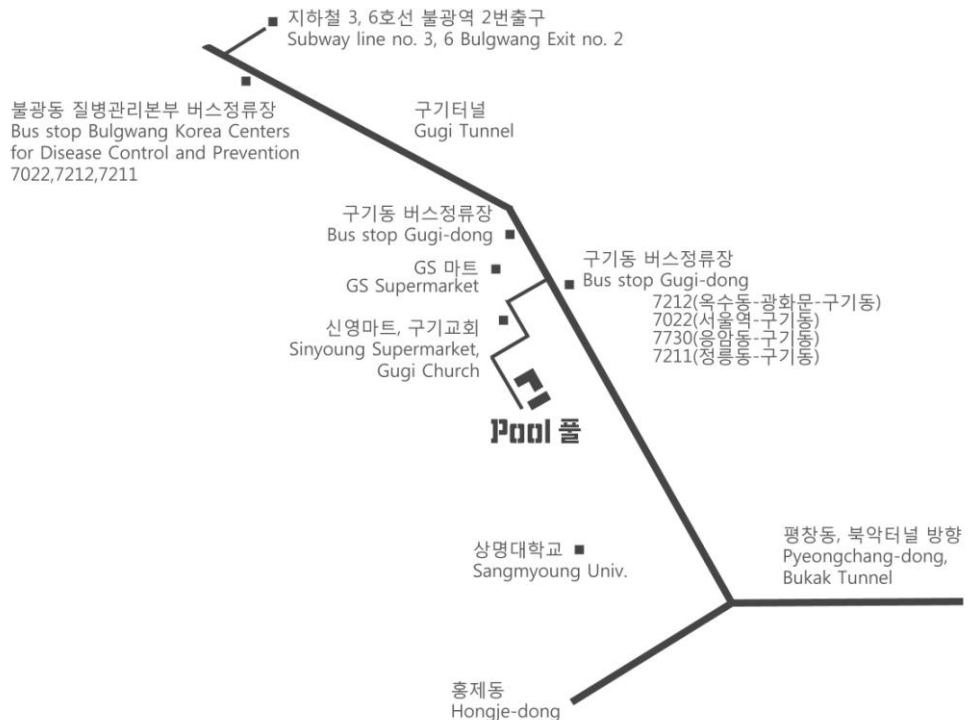
- 09. 22 목. 2pm 한국예술종합학교, 지도교수 안규철

당신들의 낙원에서 우리들의 낙원으로- 공공미술, 생태미술, 자연미술

- 09. 27 화. 1pm 한성대학교, 지도교수 홍명섭
- 10. 06 목. 6pm 홍익대학교, 지도교수 정덕영

무통문명에 소심하게 저항하기- 조용한 혁명, 석유종말시대의 미학

- 09. 28 수. 11am 동덕여자대학교, 지도교수 김학량



Pool 풀



풀 art space pool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56-13 우) 110-803
56-13 Gugi-dong Jongro-gu Seoul Korea 110-803
www.altpool.org
T 82 (0)2 396 4805 F 82 (0)2 396 9636
altpool@altpool.org

김용익 프로젝트

기획 총괄 김용익 김희진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포럼에이, 현실문화, 오비맥주

출판

지은이 김용익
펴낸곳 현실문화 포럼 에이
펴낸이 김수기 김희진
편집 강유미 김소영
사진 홍철기
슬라이드 디지털 프로세싱 김경호
디자인 정보환
재원조성 김용익 김소영
행정 진행 강유미 김수연
ISBN 978-89-6564-027-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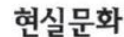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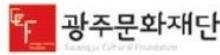
출판기념전

큐레이터 김희진
설치 공간연출 김상돈 홍태림
촬영 바라 스튜디오
번역 길예경, 권진
디자인 조지은
재원조성 김용익 김소영
프로그램, 행정 진행 김수연
캐이더링 윤보라
초기 진행보조 강동형

아트광주 페어

참여작가 김용익 이완
세일즈 파트너 윤보라 펠릭스 박
설치 공간연출 김상돈 홍태림
행정 진행 홍태림

후원





Press Release : September 1, 2011

2011 Pool Production Exhibition for Book Launching
Yong Ik Kim "Timidly Resisting the No-Pain-Civilization"

September 06 - October 14, 2011 Art Space Pool

Opening reception Tuesday, September 06, 2011, 6:00PM, Art Space Pool

Press Release Webhard : www.webhard.co.kr ID : altpool / PW : altpool

The exhibition is supported by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d The Arts Council Korea.



Yong Ik Kim, *Timidly Resisting the No-Pain-Civilization*
2010, photograph, pigment print, 30X45(framed) © Yong Ik Kim

In the beginning of autumn 2011, Art Space Pool is pleased to announce the exhibition for book launching, "Timidly Resisting the No-Pain-Civilization" for introducing the book of Yong Ik Kim(b. 1947, live and work based in Yangpyeong, Korea).

This occasion is especially held for celebrating the publication, "Why Do I art? - How the political is connected to the conceptual"(co-published by forum A and Hyunsil Munhwa, 392 pages), which is a compilation of essays written by this conceptual avant-garde artist who has studied the forms of concept,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art in Korea since 1970's. The last chapter of his book, "Timidly Resisting the No-Pain-Civilization," is prepared in tandem with the exhibition, therefore composes the space in correspondence between "writing and art work".



In the description within the history of Korean modern art which usually classifies them by style and trend, Kim is typically categorized with the group of artists representing the conceptual modernism of the 1970s avant-garde. Kim then was appeared in the Korean art scene with the series entitled “dot-dot painting”.

Artist Yong Ik Kim’s philosophy(idea) of culture has consistently penetrated a wide range of areas from philosophy to everyday life; from the pure aesthetic considerations including confrontation and reconciliation between material and image to the practical aesthetic considerations including public art, art system, culture management, art education of Korea and local art. This idea(philosophy) of culture, to him, is about the thought on attitude respecting common sense and natural flow of all in the universe. For analyzing and naming his aesthetic factors, we unintentionally face to the subject of “natural flow” of all life community, or the universe.

What we are trying to notice about Kim is his attitude which has articulated two contrasting tactics; logical reasoning and life practice, toward the natural flow. The main subjects of Yong Ik Kim, aesthetic concept and life politics, after all are all plugged into his extreme “body-aesthetics”. He thus practices the logic while reasoning logically, embodies universal principles with actual materials, integrates his philosophy and his life, and intercorresponds individual thought and social utterance. His art emerges from this “body-aesthetics”, rather than developing an art theory with complete art works. Yong Ik Kim is an artist who reminds us what does it mean that “doing” art and reasoning by art, prior to creating art works, in the contemporary art scene of Korea.

Kim has continuously wrote, as a way of doing art. His writing offers bibliographical notes as well as the documentation of his thoughts. When his writing appears come in his art works, they become part of the works. Most of all, his writing is a way to communicate with the audience and his subjects. For understanding Kim’s art world, reading his writing is very crucial as much as appreciating them in art galleries.

Comprising a selection of seventy-seven pieces of writing and one hundred images from Kim’s body of work, this publication, “*Why Do I art? - How the political is connected to the conceptual*” prospects over varied topics and situations since 1970s in Korea. The last chapter of this book, “Timidly Resisting the No-Pain-Civilization” emphasizes that public art, art education and art system after 2000 is not utilitarian art such as environmental beatification projects, but an act empowering the cultural *habitus*, the attitude of thinking in cultural terms. Illustrating Morioka Masahiro, Kim also points out the no-pain-civilization in our society where became insensible about the other’s pain and incapable over trivial pains throughout over-investigation and over-development. Kim thus treats daily labor, natural decline and universal pain in a way of aesthetics as resisting against the social numbness which must be more dismal than the commercialized sensibility.



From the perspective in the history of art, Yong Ik Kim and his works may be categorized in the performance art affiliated with so-called land art or in the religious art recalling primitive totemism. However, we must go back to his writing and hear what he said. “Art is to dream about and draw plans for becoming future-energy. Art is to cast traps for anything blocking this task and to correct blocks with logic. When pushed to the utmost extreme, this logic reaches none other than the natural flow. Ultimately, then, “doing(making) art” becomes the performative struggle of human being to live in the natural flow.” This performative struggle isn’t something extravagance and nor pleasure-seeking. It’s rather closer to daily revolution suffering every little moments. Once again, pool is pleased to share this experience by introducing Yong Ik Kim’s “body-aesthetics” which synchronizes daily aesthetics and life politics.

Heejin Kim (Director, Art Space Pool)
Translated by Jin Kwon

